

2022 년 10 월 31 일

HSBC, 아세안 포럼 개최

글로벌 경제 둔화에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아세안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HSBC 코리아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새로운 투자 기회 -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디지털화”이다.

이날 포럼에는 HSBC의 아태지역 공동 CEO, 인도네시아 CEO, 베트남 CEO, 싱가포르 글로벌 बैं킹 총괄, 글로벌 리서치 아시아 공동 총괄이 직접 대면으로 참석하여 아세안 주요국의 ESG, 디지털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기회와 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아세안이 각광받고 있다.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지역은 국내 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디지털 경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는 우리 기업에 유망한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HSBC 코리아와 HSBC 아세안 국가들은 긴밀히 협력하며 국내 기업의 이 지역 진출을 도왔다. HSBC는 아세안의 리딩 뱅크로서, 국내 기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은행이라고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도자료 문의

서채원 부분부장 02-2004-0882

chaewon.suh@kr.hsbc.com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3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9월말 기준 자산은 2조 9천 9백 2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